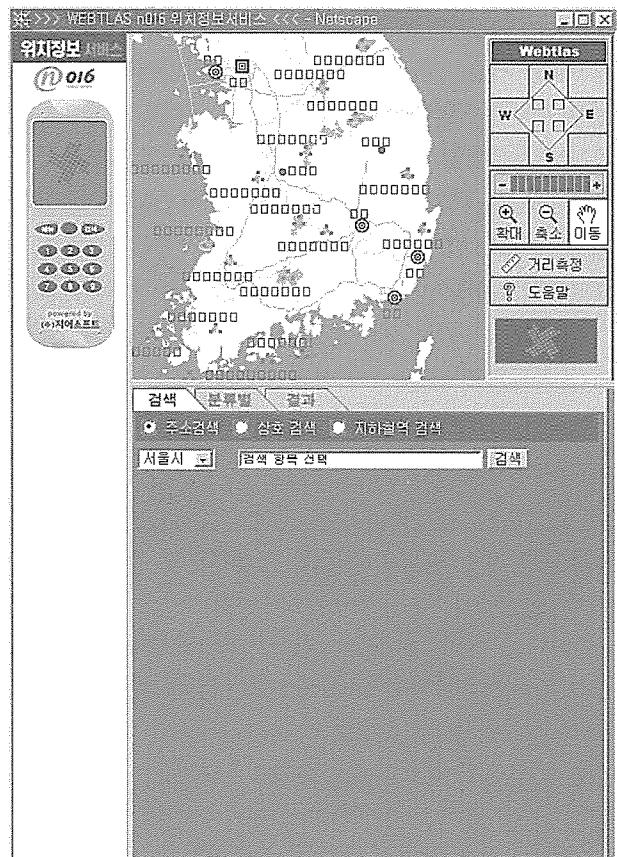


한통프리텔, 휴대폰 이용한 위치정보서비스 제공



016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프리텔은 인터넷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문기업인 지어소프트와 공동으로 단말기 위치에 기반한 '위치정보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일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PCS 016 가입자들이 휴대폰을 이용,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추천음식점, 은행 및 ATM(현금지급기), 극장, 지하철역, 주요 관공서, 레저 시설 및 관광지, 병원, 문화시설, 쇼핑센터, 할인쿠폰 정보 등 3만여개의 위치정보와 더불어 자세한 세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원하는 시설의 위치정보를 검색한 뒤 해당 시설로 곧바로 전화연결도 가능하다.

'위치정보서비스'의 주요 메뉴는 ▲생활/문화 ▲쇼핑/레저 ▲증권/금융 ▲교통/관광 ▲기관/병원 ▲n016센터 ▲정보찾기의 7가지이며 각 메뉴별로 다양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브라우저가 내장된 무선인터넷 전용단말기 네온(Neon), 현대 걸리버 메이트 등을 갖춰야 하며 이용방법은 휴대폰으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한 뒤 '위치정보'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일반 데스크톱PC를 이용, 'www.n016.com'에 접속하면 전자지도와 더불어 보다 자세한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현행 무선데이터 요금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의 정보이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물건 인터넷에서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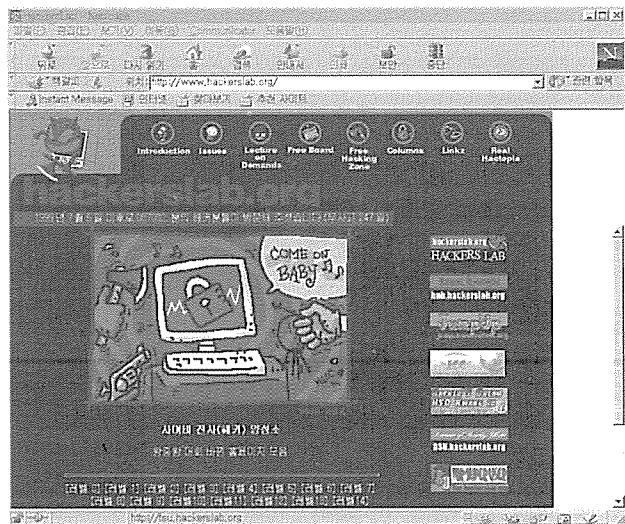
경찰청이 제공하는 인사이트(www.lost114.com)에는 전국의 파출소와 경찰서에 접수되는 각종 분실물들을 습득된 일시와 지역, 장소, 품목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돼 있어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잃어버린 장소가 지하철역이라면 '장소별 찾기'로 들어가 지하철역에서 습득된 분실물 목록을 찾아보면 되는데 분실물들의 크기와 색상, 특징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웬만한 물건들은 자기 것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서 외에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실물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의 협조를 얻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분실물 안내정보 외에 미아·가출인 찾기 사이트 개설도 추진중이다.

국내 최고 해커들 벤처회사 세웠다

해커들로 구성된 해커주식회사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화제의 기업은 네트워크 보안전문업체인 시큐어소프트에서 분사하는 해커스랩. 원래 해커스랩은 시큐어소프트에서 해커들을 발굴하고 보안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부서였다. 대표는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의 1호 수사관 출신인 이정남(45)이사가 맡는다. 그는 79년 경찰관 생활을 시작해 86년부터 10년 넘게 인터폴 한국지부에 파견 근무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범죄를 다룬 해커 전문가. 95년 경찰청 산하에 컴퓨터범죄수사대가 발족했을 때 최



초의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여명의 해커를 체포한 경력이 있는 국내 컴퓨터범죄사의 산 증인이다. 그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실수나 호기심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길을 막겠다'는 생각에 99년 6월 컴퓨터범죄수사대 경위를 끝으로 시큐어소프트에 합류했다.

해커스랩에는 국내 최정상급 실력을 갖춘 10여명의 해커들이 직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비장의 무기인 해커톤수부대 '스와트(SWAT, Security Watching & Analizing Team)'가 참여한다. 약어는 미국 경찰의 특수기동대와 똑같지만 실제는 인터넷을 통한 공격과 방어를 전담하는 민간 해커부대이다. 구성원과 인원은 일체비밀.

이들은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위해 비밀리에 키우고 있는 미림대학 전사들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만큼 최고의 실력을 자부한다. 미림대학은 북한이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해커를 키우기 위해 만든 군사학교로서 명칭과 성격 이외에 인원, 활동내용 등이 철저하게 감춰진 비밀조직이다.

해커스랩은 앞으로 건전한 해커양성을 위해 시큐어소프트에서 열었던 '해커 왕중왕대회(www.hackerslab.org)'를 넘겨 받아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해커 왕중왕대회는 총 13개의 관문으로 이루어진 보안체계를 뛰는 해커들을 위한 전문대회. 또 기업과 기관, 학교 등에 보안컨설팅을 실시해 네트워크 안전을 점검해 줄 계획이며 해

커아카데미를 운영, 보안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할 방침이다.

해커아카데미는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 기관, 학교 등에서 위탁하는 전산전문가들만 엄선해 보안전문강의를 실시하게 된다. 해커스랩 관계자들은 초기자본금을 모으기 위해 멘처펀드 및 창투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중이다. 이밖에도 시큐어소프트와 컴퓨터백신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하우리 등 다수의 네트워크 보안관련 업체들이 지분투자 등 설립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보안에 대한 자문의뢰가 쇄도해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분사를 결정했다"는 그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커들로 구성된 보안연구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로에 인터넷 공동체 구성하려는 업체 출범

한국테크노밸리(주) (대표 이강우)는 한국소프트창업자문(주), (주)커뮤네트웍, 중앙일보, 평화은행, SBS인터넷 등 참여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제공받아 한국형 실리콘밸리 환경을 조성하고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터넷커뮤니티를 형성, 지역벤처문화를 창출키로 했다.

테크노밸리는 앞으로 지역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포탈서비스, 온라인 상거래서비스, 지역뉴스서비스, 온라인만남의 장, 지역통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 지역의 벤처기업인들끼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멤버쉽카드, 할인카드, 결제카드, 통합마일리지카드 등을 발행, 역내 비즈니스회원간에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조성하고 비즈니스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테크노밸리는 이같은 사업을 통해 개인회원 50만명, 기업회원 1만명을 유치, 매년 5백%의 성장을로 3년 후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KBS 해외 인터넷방송 '한터넷' 개국

KBS의 해외 인터넷방송인 '한터넷' (www.hanter.net)

net)이 개국했다.

KBS는 6백50만 해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미국 LA에서 한터넷 개국 기념식을 갖고 시범방송에 들어갔다.

한터넷은 '한민족을 위한 인터넷' 이란 뜻으로 KBS의 풍부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해 인터넷으로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 한민족의 정보 구심점을 구축하기 위한 한민족 공동체 사업의 하나이다.

한터넷은 1차로 2백만 교민이 살고 있는 북미주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서버를 설치(소재지 시애틀), 3월 1일부터 시범방송을 실시하고 향후 일본, 유럽, 호주 등지에도 협력업체를 통해 로컬 서버와 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터넷에서는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외교민용 생활정보들이 제공되며 특히 교민 2, 3세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 혼인정보, 유학정보, 취업정보, 이민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美 레코드업계, 소니 온라인 음악판매 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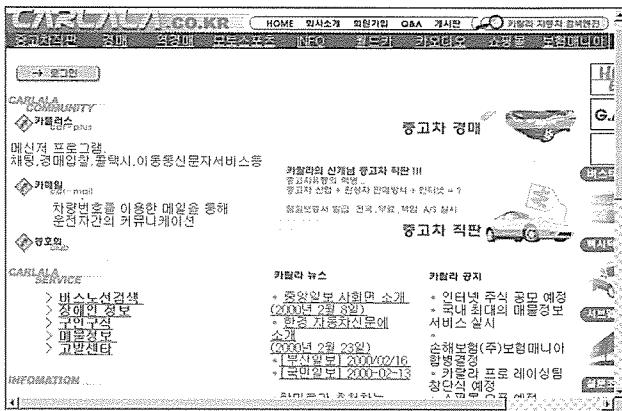
소니가 온라인 음악 판매에서 불공정한 행동을 한 혐의로 타워 레코드 등 1천여 음반업체들이 가맹하고 있는 미 레코드판매협회(NARM)에 의해 제소됐다.

NARM은 최근 위싱턴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소니가 온라인 음악 판매시 영향력을 행사해 자사 판매망을 이용하도록 음반 소매점들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저작권 침해, 허위 광고 및 부당한 가격 차별 혐의로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소니 미 현지법인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NARM의 이사회 의장인 스텠 고먼 타워 레코드 수석 부사장은 "타워 레코드가 소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으나 정작 음악 판매시 우리를 제외하도록 소니가 소매점들에 압력을 가했다"고 분개했다.

그는 NARM이 지난해 초부터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도록 소니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돼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니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소장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버스 친절 주가로 평가



시내버스의 친절도를 주가로 매기는 사이버 주식시장 '버스닥(BUSDAQ)'이 인기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장한 버스닥 (<http://www.carlala.co.kr>)엔 40여일만에 별씨 5천여명이 다녀갔다. 이 곳에선 네티즌들이 3백60개 서울시 노선버스에 대해 만족점수(+1원)와 불만점수(-1원)를 주면 이를 모아 지수화 한다.

상한가를 달리는 버스들의 비결은 친절한 기사와 청결. 어느 여대생은 "아침마다 상큼한 향기가 나는 버스를 타면 기분마저 좋아진다"며 62-1번(구로동~개포동, 주가 1천2원)을 추천했다.

외국인들이 많이 타는 1002번(김포공항~광화문)은 과속 문제 때문에 주가가 1천원 밑에서 맴돌고 있다. 버스닥을 운영하는 자동차 전문사이트 '카랄라'의 김영택(金營澤) 부장은 "아직 격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랄라 측은 다음달부터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네티즌들이 버스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형태로 버스닥을 개편할 계획이다. 대상도 전국 각 지역 버스와 고속버스로까지 확대한다. 결과는 시민단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서울시, 문제 인터넷쇼핑몰 명단 공개

서울YMCA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1백60여개 전자상거

래업체 쇼핑몰을 점검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자체 시민중계실 홈페이지(<http://consumer.ymca.or.kr>)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kr>)에 동시에 공개키로 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업체 정보 △거래약관 게재 △교환 및 반품사항 고지 △원산지표기, 품질보증 등 상품정보 공개 △청약철회권 보장 등이라고 서울YMCA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세부적인 점검항목 마련과 모니터 교육 등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점검활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 형식으로 해당업체 이름(쇼핑몰 이름)과 인터넷 주소, 지적사항 등이 인터넷상에 상세히 공개된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일반상거래와는 달리 전자상거래에서는 사후구제가 어려워 이번에 사전예방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종합쇼핑몰 업체들부터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조사업체 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e베이, 바이닷컴, CNN사이트도 해킹

세계적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Yahoo)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마비된지 하루 뒤인 2월 9일 아마존닷컴(Amazon.com), 바이닷컴(BUY.com), e베이(eBAY)는 물론 24시간 텔레비전 뉴스채널인 CNN웹사이트 등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들이 야후와 같은 형태의 해커공격을 받아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바이닷컴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사이트가 해커들의 집중공격으로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거의 4시간 동안 마비됐다.

또 1천만명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인기있는 경매 사이트인 e베이도 이날 오후 2시 45분께부터 일부 접속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기술진들이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아마존닷컴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엄청난 양의 가짜 접속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빌 커리 아마존닷컴 대변인이 밝혔다.

야후 사이트가 다운된지 약 24시간 만에 가장 인기있는

사이트들이 연쇄적으로 마비되자 보안 전문가들은 시기와 공격방식의 유사성을 들어 동일범들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야후의 다이앤 헨트 대변인은 전에도 이같은 공격이 소규모로 있었으나 회사측이 접속 방해를 바로 해결했으나 이번의 경우엔 매우 집중적인 공격이 가해졌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회사측이 방어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MTV 코리아’ 웹사이트 개설



세계적 음악전문 채널인 MTV를 인터넷에서 감상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아시아컨텐트닷컴코리아는 음악 포털 사이트 ‘MTV 코리아 온라인’(www.mtvkorea.co.kr)을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선 국내 케이블TV 음악전문채널 m.net을 통해 방송되는 MTV 프로그램과 국내외 1만5천여 가수, 30여 만곡에 대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국내외 가수 및 음악계의 소식과 평론가들의 음악칼럼, 스타 인터뷰, 각종판매 차트 및 인기 순위 등의 정보도 담겨 되며, 회원들의 공간인 ‘커뮤니티’와 이벤트가 격돌여지는 ‘팬스터프’ 등의 코너도 함께 마련된다.

이 웹사이트 오픈에 맞춰 ‘한국 대표가수 선정’, ‘사이버 타임캡슐 제작’, ‘회원가입자 선물 증정’ 등의 이벤트도 열릴 예정. ⑦